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30분
오전 (2부) 7시 30분
오전 (3부) 7시
오후 (4부) 12시
금요일회 (1부) 18시 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 30분
오전 (2부) 10시
오후 (3부) 2시
저녁예배 7시 30분
수요일회 (4부)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3년 12월 29일 (제722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철야 주일 예배 위치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칼럼

후회 없는 한해를 살았는가?

2013년이 저물고 있다. 올해 당신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는가?

나에게 후회 없는 삶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매사 최선을 다하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말할 것이다. 마라톤 선수가 완주를 하고 힘이 남아 있다면, 그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권투 선수가 경기가 끝났는데 아직 팔팔하다면, 비록 상대를 눌렀다고 할지라도 그 역시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사자박토(獅子搏兔)라 했다. 사자도 토끼를 잡을 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자가 동물의 왕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자부한다. 지구 반대편의 작은 마을에서든, 대형집회든, 심지어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든 나는 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법제가 들어올 때 다윗의 심정으로 일했다. 왜? 후회하지 않으려고. 더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면 안 되니까. 요즘 소천한 우리 성도들의 장례식장을 다니면서 생각이 깊다. '저들은 후회 없는 삶을 살다 갔을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할까?'

내가 늘 심비해 새기고 다니는 말씀이 이것이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눅16:10)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마25:30)는 말씀이다. 나는 이 말씀의 가르침이 너무 무서워 매사 최선을 다했다.

'당신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라. 최고가 되는 길은 최선을 다 하는 길이다. 올해 매사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우리 이제 이전 일은 기억지 말고, 감을 건넌으면 뱀뱀을 버려라. 실패와 실수는 성공의 산실이 아니던가!

여보게, 다시 시작하세!

조직적인 정신력으로 무장하라

2013년도 이제 우리의 환송을 뒤로 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세월의 강물로 흘러가고 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보자'는 슬로건으로 힘차게 달려왔던 한 해였지만, 언제나 한 해를 마감하는 순간이면 누구나 만감이 교차하기 마련이리라. 어차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요, 하나의 선택은 또 다른 선택의 기회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을 남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택의 결정까지는 숙고하되 이왕 선택하고 결정했으면 더 이상의 미련이나 아쉬움은 뒤로 하고 힘차게 추진해

2002년 아프리카(Africa) 가나(Ghana)의 타코라디(Takoradi) 집회 영상은 당시 현지의 악조건을 목사님이 어떻게 극복해내셨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TV 및 라디오 방송사를 찾아다니며 직접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전단지들을 찍어 시장 통을 누비며 복음을 전했다. 현지에 동행했던 증인으로서 참언하자면, 그 타코라디의 시장가리는 육류와 생선 썩는 악취가 진동하여 코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였던 곳이었다. 또한 식육점에 진열해놓은 고깃덩어리에는 파리가 새

디서나 한결같았다. 다시 말하지만, 목사의 오늘은 바로 그러한 자세를 29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해온 결과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 요소는 자신부터 가차 없이 잘라내고, 전쟁에 참여한 전투원 모두를 한 정신, 한 방향으로 결집시켰다. 그런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된 정예부대를 당할 적은 없다. 오직 기도하여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목사님이 나서는 집회마다 성과를 내는 이유다. 그리고 끝으로 목사의 감점은 늘 새로



젊은이여! 도전과 모험이 미래를 만든다!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 아니겠는가. 이 한 해, 그러한 자세로 달려왔다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성공적인 경주를 마쳤다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 자구 지나간 시간에 미련을 두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목사님은 한 해를 마감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강을 건넌으면 뱀뱀은 버려라.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뒤를 돌아 보아서는 안된다. 이제 지나간 시간은 어차피 부도난 수표요, 우리는 다시 미래를 향해 새로운 항해를 시작해야 한다.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다시 또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목사님은 묵회 29주년에 즈음해서 당신의 묵회 29년의 여정을 영상을 통해, 그리고 이시대 목사님의 생생한 간증을 통해 소개하셨다.

카망개 달려붙어 보는 것만으로도 비위가 상할 정도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음식을 사다 몇 번을 씻어 삶아 먹으며 오로지 집회 성공을 위해 올인하시는 목사님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향해 혼신을 다하는 자에게 어떤 결과로 응답하시는지 똑똑히 목격하였다. 설령 현지 목회자가 거짓말을 했건, 돈을 탐했건, 그런 것은 목사님께 전혀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다. 싸움질이나 도둑만 전파되면 그만이라던 사도 바울의 자세 그대로였다(행1:15-18).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역사는 그 집회의 성공과 그 집회를 통해 변화된 영혼들을 기억할 뿐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항상 느끼는 바이지만, 목사님이 집회에 임하는 자세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 바로 그 모습이다. 이 전쟁에서 지면 곧 죽는다는 절박한 입전 자세 말이다. 이 자세는 언제 어

운 세계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곧 소유욕이 아닌 성취욕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일의 성취를 통해 결과를 누리려는 자세가 아니라 성취된 것은 뒤로 하고 이 상의 성취를 위해 다시 도전하는 자세가 체질적으로 조직화된 분이다. 따라서 목사님과 일하며 '이젠 됐다', '이 만큼 했으니 좀 쉬며 천천히'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다. 지나간 것은 다시 새로운 도전을 위한 밑거름일 뿐이다.

한 해를 마감하며 목사님의 성공 요인에 대해 분석을 가하는 이유는 목사님의 조직화된 정신력을 닮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삶에 대한 치열한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이다. 2013년의 강은 이미 건넜다. 그 과정이 어떠했던 이제 뱀뱀에 대한 미련은 버리고, 이제 2014년이다. 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자.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2014 신년축복성회

일시: 2014년 1월1일(수) ~ 3일(금) 저녁 8시

장소: KBS 88체육관

문의: 1600-0688, 02-533-9191



29년 목사님을 옆에서 본 사람들의 입 모음

- | | |
|----------------------------------|---------------------------------|
| 1. 예수님을 만난 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에 미친 분 | 20. 노력보다 무서운 무기와 보약은 없다는 분 |
| 2.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외치는 분 | 21.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이란 생각만 있다는 분 |
| 3.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라 외치는 분 | 22. 불량품은 기업과 인생의 암이라 가르치는 분 |
| 4. 방언기도는 기쁨과 안식의 산실이라 외치는 분 | 23. 고객은 품질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분 |
| 5. 오늘도 귀신 쫓고 내일도 귀신 쫓으라는 분 | 24. 아는 것이 없으면 할 일이 없다고 가르치는 분 |
| 6. 신앙엔 타협이 없다고 가르치는 분 | 25. 큰자가 되기전에 깨끗한 자가 되라는 분 |
| 7. 죄악과 타협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분 | 26. 적보다 무서운 건 무능한 지휘관이라 말하는 분 |
| 8. 약속을 생명이라고 가르치는 분 | 27. 강을 건넌다면 뗏목을 버리라는 분 |
| 9. 명작은 열정의 산물이라고 가르치는 분 | 28. 부자로 죽지 말고 부자로 살라는 분 |
| 10. 소유욕보다 성취욕을 가지라는 분 | 29. 울타리 헐 때는 울타리 칠 때를 생각하라는 분 |
| 11. 배려와 용서는 사랑의 친구라는 분 | 30. 실패자는 핑계, 성공자는 방법을 찾는다는 분 |
| 12. 그릇이 클수록 섬세함을 잃지 말라 가르치는 분 | 31. 단점에 매몰되지 말고 장점을 찾으라는 분 |
| 13. 긍정을 찬양하고 부정을 배척하는 분 | 32. 내가 서 있는 땅부터 기쁨지게 하라는 분 |
| 14. 거짓말을 안 하려고 입에 자갈을 무셨던 분 | 33. 천문천답이 예수 때문이라고 하시는 분 |
| 15. 상상력의 전원이 꺼질까봐 노심초사한 분 | 34. 마르지 않는 샘과 열정이 식지 않는 분 |
| 16. 미지의 세계에 매력을 느껴 도전과 모험을 즐기는 분 | 35.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
| 17. 게으름의 정의는 무책임이라 가르치는 분 | 36. 항상 우리를 힘내라 응원 해 주시는 분 |
| 18. 문제 속에 기적이 있다며 문제를 친구 삼으라는 분 | 37. 무덤을 만들어놓고 유언을 하고 살아가는 분 |
| 19. 재물보다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살자는 분 | |

목사님! 우리 모두 사랑합니다. ♥♥♥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분, 한 마디로 ‘멋져부러!!’

우리들의 삶을 !

올해 걸어온 발자취

숨길 수 있을까?



시작보다 끝이 좋은 삶!

최근 북한의 2인자 장성택이 무참히 공개 처형되는 사건이 있었다. 북한의 1인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김정일의 공포정치라는 설에 무게가 실린 가운데,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던 장성택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에 씁쓸함을 감추기 어렵다. 장성택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북한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릴 때, 누가 이런 마지막을 예상했겠는가? 이렇게 한치 앞도 못 보는 것이 인생이자 한 계이기에 화려했던 그의 허망한 끝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시작'은 이미 많은 것이 결정되어 있었다. 부유함과 가난함, 건강과 장애 등, 대부분 우리의 의지와 무관한 것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의 '끝'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는가, 어떻게 살기로 결심하는가에 따라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부자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을 부인하면 지옥에서 물 한모금의 자비를 구해야 할 것이고, 나사로처럼 가나안婦에 허덕여도 하나님의 복을 안에 거하면 천국을 보장받는 것은 물론이요,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포츠인, 연예인처럼 건강한 육체와 아름다운 외모로 자신의 이름을 높여도 자살, 구속으로 생을 마감하는 인생이 있는가하면, 닉 부이치치, 레나 마리아처럼 연약한 육체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빛나는 인생이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지복하여 조대왕으로 추대되었던 사울이 사명을 잊고 자신의 명예에만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채 멸망을 자초한 인물들을 볼 수 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자로 시작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

난 후, 바울로 개명하며 새롭게 시작하고, 수많은 전도의 열매와 서신서를 남겨 창대한 마지막을 장식했던 것처럼, 선교지에서 도망치는 나약한 모습이던 마가가 자신을 거부하던 바울에게까지 매우 귀한 존재임을 인정받으며 복음서를 완성했던 것처럼, 시작보다 끝이 더욱 창대하고 위대했던 인물들을 우리는 교훈삼아야 한다.

교회 내에서도 처음에는 멋지게 사람들에게 품 잡다가 말로는 비참하고 심치기 짝이 없는 목사들, 멸망을 맞보는 장로, 권사, 집사들을 가끔 본다. 현재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이나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우리는 이것을 거울 삼아 소유욕을 버리고 성취감에 기쁨을 맛보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그런 자는 후일에 아름답게 꽃을 피워 열매를 남기리라. 호사유괴 인사유명(虎死留皮 人死留名)이라 하지 않는가. 예수 이름을 남기고 가는 자가 참 진리를 아는 삶을 산 자다.

2013년에 남겨진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아직은 세상이 말하는 멋진 삶, 완벽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 조금이라도 더 노력했다면,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 잘 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내 욕심에 물질과 명예를 얹고자 하나님의 숨결을 멀리했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분명 비틀어지고 있으며 빨리 바른 길로 돌아서야 할을 깨달아야 한다.

2013년 한 해, 자신을 높인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려놓고, 2014년 밝아오는 새해에는 천국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본다.

하인영
renming@daum.net

2013년을 마감하며

이 해를 보내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시작이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마지막이 아름다웠던 요셉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랑하실까?

요셉의 삶은 이렇다. 그는 약속된 꿈의 계시를 무시하지 않고, 형제의 배척으로 인한 노예 생활, 거기서 파생된 유혹, 멸시와 천대, 누명을 쓰며 옥중 생활에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자신과 싸워 이긴 자다. 이는 그의 믿음이 반석 같았기에 요동하지 않고, 기다림이란 친구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라. 기다림이란 단어는 믿음을 가진 자의 특권이니라. 요셉의 삶을 통해 내 안에 버려야 할 원망과 구슬(舊習)을 점검하는 것, 그리고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감사와 교훈을 되새김해보자.

요셉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였다. '므낫세'는 '잊어버렸다'는 뜻으로, 이는 요셉 자신이 자신에게 닥쳤던 모든 고난, 즉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원망, 보디발의 아내에 유혹과 누명으로 옥살이를 하게 된 억울함 등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슬픔을 다 잊어버렸다는 일종의 선포였다(창41:51).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다. 그는 분노와 상처가 마음에 오래 머무름수록 그것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방해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전진하는데 걸림돌이 됨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었다. 바로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는 뜻이다(창41:52). 이는 결국 자신이 울며 씨를 뿌린 그 땅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러한 축복은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었다.

요셉의 이러한 삶의 태도는 그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 없이 축복의 길에 서게 하였고, 또한 애굽의 총리라는 최고의 지위에 오른 뒤에도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대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이를 위해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 홍해의 기적 등,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의 기억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반대로 완전히 잊어버리고 돌이켜 생각지 말아야 할 종살이 생활을 오히려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보였다. 그 결과, 그들의 영성은 4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다. 그리고 결국 약속 받은 가나안 땅을 직접 밟아 보지도 못한 채, 한 세대가 마무리되는 초라한 결과를 남겼다.

2013년을 마무리하며 잊어야 할 것과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 세상이란 망망대해를 홀로 항해하는 동안 버려야 할 짐을 과감히 내어 버리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를 잊지 않을 때, 거친 풍랑과 험한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사히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주실 것이다. 곧 2014년이다. 새해는 새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자가 되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권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띠를 풀지 말고 기록을 찌니라"(신6:6-9).

신영서
jesus7857@gmail.com

배려와 권리

배려의 사전적 의미를 되새기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려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며, 자신의 측은지심(惻隱之心)에 따라서 곧잘 배려를 베풀며 대인 관계를 유지해나간다.

그런데 이 배려라는 것이 탈해도 탈이고, 더해도 탈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호의를 아홉 번 베풀면 호구가 된다'는 말이 있다. 선의의 배려가 잦아지면, 상대는 배려를 자신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에 자의권 타의권 간에 배려가 소홀해지게 되면, 상대방과의 관계에 틈이 생기며 애석해지기 마련이다. 수업들 들어 오느라 학생들이 밥도 못 먹고 공부를 하는 것 같아 엄마의 마음으로 맛있는 간식을 챙겨주면 적이 몇 번 있었다.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으로 간식을 먹던 학생들이 수업하면서 간식 먹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혹시라도 간식을 챙겨주지

않는 날이면, "선생님 오늘은 왜 간식을 안주세요?"라면서 은근히 섭섭해 하는 기색을 보이는 것이다. 아이들에 대한 배려의 의도가 바뀌어 버리고 만 것이다. 배려를 권리로 착각하는 것은 비단 아이들의 문제만은 아닌 듯하다. 명절 때마다 선물을 보내는 후배가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선물이 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바쁘겠거니 했는데, 점차 그 후배에게 화가 났다. 매년 생일이면 꽃과 메시지를 보내던 제자 녀석에게서 꽃이 오지 않았다. 서운해진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어느덧 나는 후배나 제자들이 보내주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면서 살았던 것이다.

적정한 수준의 배려를 유지하는 것과 배려에 대한 감사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가족지간에도 마찬가지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처럼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과 배려는 어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과

배려가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인 줄 착각하며 오만방자해지는 자녀들이 종종 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하는 행동들을 부모님의 입장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가족이나 타인으로부터 받았던 배려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나에게 다가왔던 배려의 손길들을 응당 누려야 할 권리인 것처럼 여기고 살았다면, 처음에 누렸던 기쁨과 감사를 떠올려보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베풀어주었던 그 순간의 마음을 잊지 말고 작은 배려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보자.

목사님은 배려와 용서는 사랑의 친구라 하셨다. 우리, 능력있는 자의 특권, 배려와 용서, 사랑을 실천하여 2014년 모두 복 있는 자가 되자.

오자유
oh.free@hanmail.net

::Edu Section::

과거에서 교훈을 얻을 수는 있어도

과거에 살 수는 없다

강을 건넌으면

뗏목을 버려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